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27>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

부처님이 기원정사에 머물고 계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장로 사리불이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부처님, 만약 수행자가 다른 이의 잘못을 들추려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다섯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는 반드시 사실이어야 한다. 둘째는 조인할 때를 잘 알아서 말해야 한다. 셋째는 이치에 합당해야 한다. 넷째는 부드럽게 말해야 한다. 다섯째는 자비심으로 말해야 한다.”

“하지만 진실한 말을 했는데도 성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에게는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 서 말한 것임을 깨달도록 해야 한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말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리불이여, 만약 어떤 강도가 와서 그대를 묶고 그대에게 해를 입히려 한다고 하자. 그때 그대가 강도에게 나쁜 마음으로 욕하고 반항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강도는 그대를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는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고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이익이다. 마찬가지로 누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치솟는 것을 억누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행위는 그렇게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저와 똑같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진에 댓글을 달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이때부터였습니다.

분노를 사이지 못한 얼굴 없는 대중에 의해 그 여자의 영타리 신상영상이 마구 올라오고 그 여자에 대한 무차별 처벌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의 사람이 좀 점잖게 비난의 글을 올렸다고 싶으면 그보다 더한 욕으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그 욕보다 더 심한 욕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더 심한 욕이 생각나지 않아서인지 문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여자 신상에 관해서 터무니없는 비방을 가했습니다. 그 비방에 또 다른 이가 욕을 덧붙였습니다.

대체 우리가 중요하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 사이의 기본 윤리조차 서지 않은 현실을 고민하고, 공중도덕에 대한 불감증을 반성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별로 깊이 있는 의견이 나오지도 않은 채 결국 공중파 뉴스에서 ‘질제와 에티켓이 없는 네티즌’들

잘못한 이를 향한 분노가 마음을 차지하면 해답 못찾고 남과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말하더라도 그에게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말라. 원망하기 보다는 불쌍한 마음을 일으켜라.”

“그러나 진실한 말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인파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게으르고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잡아함18 권 거저경>

얼마 전 서울 지하철에서 애원건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은 20대 여성의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와 사람들의 관심을 크게 모았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통해 그 여성의 얼굴까지 자세히 보았을 정도이니 이 사건의 정황과 그 여성의 사진이 전국의 네티즌들 사이에 얼마나 급속도로 번져 나갔는지 상상이 갑니다.

생생한 현장 사진 여러 장과 함께 그녀가 주변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거친 욕설로 얼룩진 사건 경황을 읽어가자니 마음속에 견잡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어쭈, 저걸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기만 두지 않았을 텐데...”

을 격정하는 정도에서만 이 사건은 다루어졌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리 분노하였을까요? 자기가 그만큼 화가 났음을 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혹은 뭔가 화풀이할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을 일러주는 부처님의 말씀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잘못된 행동을 한 여인에게 화를 내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릇된 것은 꾸짖어야 하고 그래서 다시는 똑같은 짓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잘못을 꾸짖는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된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보다 분노가 먼저 자리 잡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분노에 눈이 어두워져 남도 해치고 나아가 분노의 열기는 결국 스스로를 태우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일에서 인용한 집자합경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했다> (정승, 126~127쪽)에서 전문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

■ 이미경(통국역경원 역경위원)

‘나는 누구인가’ 진실로 아는가



혜운 스님

(대구 여어선원장)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일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혜운 스님.

“나는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니 한마디도 할 말이 없어요.”

한자로 기자만나기를 거부하던 혜운 스님은 우리나라 당대 최고 선지식인 운봉 선사와 한국 선사의 법어집을 내놓으며 말문을 열었다. 특히 ‘선병요설(禪病要說)’이란 대목을 펼쳐 보이며 수행에 큰 도움이 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참선을 공부하는 이들이 범하기 쉬운 선병들이 조목조목 소개된 부분이다.

‘선병밖에 어떤 것이 병 아닌 선이겠는가?’ 라는 선지식의 단호한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혜운 스님은 스스로를 ‘유명무실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오랜 기간 한국 선법을 가까이서 모시며 명안(明眼)을 얻은 선사다.

한국문도회 회장으로 1997년 운봉 스님과 한국 스님의 법어집 재판 보급에 나섰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국 선사의 서툰 발 같은 행적을 옆에서 지켜보며 알게 모르게 온몸으로 그 법력을 느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스님에게 한국 스님을 시봉했던 이야기를 여쭙었다.

“요즘 스님들은 너무 쉽게 살아요.”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는 혜운 스님은 눈을 지긋이 감았다.

“우리가 살았던 것처럼 하면 지금 스님들은 다 도망가고 말게요.” 스님은 눈을 번쩍뜨며 웃어 보인다.

그 표정에 수많은 세월을 지나는 수행이력이 묻힌 물어났다. 눈을 감고 뜨는 결로라도 말없는 법문이 되는 것이다.

“예전에는 큰스님들이 경전이나 율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출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목이 지내는 방에서 나무를 하는 등 절 일을 해야 했지요. 저 높이 수행자가 될 그릇인가를 살펴보고 수행자 색이 보여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출가하고 나면 그저 또 열심히 일만 해야 합니다. 아프다고 약을 주지도 않고 먹을 것이 풍족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옷도 모두 얻어 입었지요. 양식이 없으면 굶기도 하고, 옷이 떨어지면 누더기며 기워서 입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무척 어려웠지만 그것이 도를 이루겠다는 발심을 막지는 못했지요. 지금까지도 일일이 가르침을 내리거나 설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러나 그 속에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온전히 전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니다.”

스님은 앞에 있던 물 컵을 불쭙 내밀며 “이렇게 전달하는 법이 있었지요”라고 말을 이었다.

스님의 말씀에서 영산회상 당시 부처님께서 꽃을 드니 가삼존자가 말없이 미소짓는 모습이 연상되었다. 혜운 스님은 그러나 요즘은 더 이상 이런 모습을 거의 보지 못하고 한탄했다.

**티끌이라도 걸림 없어야**

스님도 힘든 수행 생활을 피해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았을까? 생뚱맞은 질문을 던졌다.

“옛날 스님들은 아주 잘난 사람이나 아니면 아주 못난 사람이 스님 노릇을 제일 잘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생각이 뚜렷하거나, 아니면 말도 못하고 모습도 못생긴 사람이 좋노릇을 잘 한다는 것이지요. 나는 뭐냐 못 생겼으니 어디 갈 생각도 못 하고 부처님 밥을 먹고 살았지요. 그러나 50이 넘으니 마음이 정확하게 굳어집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부처님 공부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지요.”

그저 못났으니 부처님 밥 먹고 살아왔다는 스님. 그러나 화두가 무엇인가를 일러주는 스님의 눈은 예사롭지 않다. 한평생을 오직 화두참구 하나로 살아온 수행자의 빛이 역력하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풀리지 않는 문제를 비유해 ‘화두’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화두는 참선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공안 말씀 주는 것을 화두라고 하는데 일반

**滿 行 靴** 가득한 행 상표등록 제614981호 의장출원 제35872호

극세사 (만행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망사 (만행화)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단화 특징** : 만행 및 포행시 단정함을 유지 (수행자 복장과 조화)    ● **단화 색상구분** : 스님용 - 회색, 흑, 백 / 신도용 - 흑, 백

**과학으로 탄생시킨**

**건강웰빙 기능성발창**

만행 및 포행시 발바닥 주요 경락을 지압하여 누적된 피로를 풀어주고 특히 몸무게 하중으로 짓눌려 고생하는 발바닥 지압을 통해 몸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제조원 : 백산아트 **만행화** www.manhaenghwa.co.kr

문의 및 주문 TEL : (02)927-5715 H.P. : 011-9000-5715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129-212 **농협 063-12-250427** 예금주:구자민

※ 제품 확인 하신후 구입결정 하실 수 있습니다. ※ 스님, 도반님께 선물용으로 참 좋습니다.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항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항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 제조 및 판매: **☎선농BIO식품(주)**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장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현성 스님의

이들이 쉽게 말하는 화두와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또 화두는 '탄다' '태워준다'라는 말을 씁니다. 속가의 자식에게 재산을 태워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똑같은 자식이라도 재산을 잘 보존할 자식이 있고, 금방 잡아 먹을 자식이 있습니다. 화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화두를 타파해 부처님 해명을 이을 사람이 아닌가를 먼저 간파해 공부 안할 놈에게는 화두를 잘 알려주지 않는 법입니다.

옛날 성철 스님에게 화두 한번 타파된 삼천 배를 해야 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화두는 소중히 알려줘야지 딱 주듯이 쉽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과거 스님들은 화두를 알려줘서 그날 저녁에 타파하지 못하면 바로 쫓겨났습니다. 그만큼 무섭게 했지요. 만일 그날 저녁에 타파 못하면 3일, 또 3일 만에 못하면 1주일, 그 1주일 만에 해결 못하면 벌써 별 붙일 법입니다. 말하자면 밥종이 되는 것이지요. 밥이나 먹고 세월이나 보내는 것이지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부터도 밥벌레 노릇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두를 타고, 타파하기 위한 옛 스님들의 정진이 얼마나 험난했는지를 엿볼수 있는 말씀이다. 혜운 스님은 어떤 화두를 뒀을까? 스님은 부산 선암사에서 큰스님(항곡이) 너무 무서워서 몇 번을

망설임 끝에 화두를 뒀다고 회고했다. "옛날 중국 총림에는 황벽 스님이 3천명의 대중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황벽 스님 버금가는 목주 스님도 있었고, 또한 유달리 공부하려고 애쓰는 입제 스님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주 스님이 입제 스님에게 황벽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불법의 똑바른 큰 뜻입니까?' 라고 질문할 것을 권했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 끄듯 공부들**

다음날 입제 스님은 목주 스님이 일러준 대로 가사장삼을 수하고 황벽 스님을 찾아가 '어떤 것이 불법적적대의입니까?'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황벽 스님은 주장자로 마구 내리쳤습니다. 입제 스님은 깜짝없이 두들겨 맞은 채 쫓겨났습니다. 목주 스님은 다시 입제 스님에게 황벽 스님 찾아갈 것을 권했습니다. 목주 스님의 말을 들은 입제 스님은 그대로 했지만 3일을 황벽 스님으로부터 얻어맞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는 황벽 스님을 떠나 대우 스님을 찾아갔지요. 대우 스님을 찾은 입제 스님은 '불법적적대의를 묻는데 무슨 허물이 있다고 방망이를 드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우 스님은 '황벽 스님이 전심전력을 다해 불법적적대의를 일러줬는데 무슨 허물을 찾느냐'고 말합니다. 순간 입제 스님은 바로 깨쳤다고 합니다."

항곡 스님으로부터 "불법적적대의(佛法寂寂大意)가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뒀다는 스님은 황벽 스님 회상 이야기를 통해 수행자는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 스님의 공부는 어땠을까? 항곡 스님은 스님에게 어찌 일러주셨을까?' 궁금했다.

"항곡 스님은 수시로 공부에 어려한가를 물었습니다. 또 더러는 '나도 알았다' 해서 스님을 찾아가 대질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스님은 그 때마다 '공부 진실하게 해라', '나중에 일면 찾아오나라'며 화두를 다시 일러주곤 했지요. 법을 설하거나 설명을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참선 얘기는 하면 할 수록 그르치는 것입니다. 한 번 화두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진실하게 할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실하게 공부하는 것입니까?" "말 잘한다고, 오래 앉아있다고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자기를 알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누가 나인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불법적적대의'를 묻는데 방망이로 때린 것을 알면 진실하게 한 것입니다."

스님의 명쾌한 설명에도 고개를 갸우뚱 거리는 기자를 위해 스님은 다시 자비심을 베풀었다.

"대신심과 대의심, 대웅맹심으로 이 공부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옛날 선사들이 위태로움과 득실을 돌아보지 않고 천리 만리 길을 멀다 하지 않고 선지식을 찾아가 친견을 하고 법의 문으로 들어가 일대사를 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또, 이 공부는 티끌처럼 미세한 것이라도 걸리는 곳이 있으면 다 틀려 버립니다. '공부를 해서 해결한다'는 자세로 그 길만을 밟아 가야 되는 것이지요.

많은 큰스님들을 모시고 살았다는 혜운 스님은 "요즘은 사회적으로도 인물이 없고, 절집안에도 인물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특히 조실 없는 선방이 많다는 것은 큰일이라고 걱정했다.

**다라니 외는 것만으로도 공덕**

스님은 조실스님에게 일일이 지도받으며 참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익이 별로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또 문중을 가려 조실을 모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공부 많이 하려고 애쓰는 스님도 있지만 진실하게 안하니까 안 되는 것"이라며 진실한 수행을 강조했다. 재가불자들에게는 "자기완성한 사람이라야 온전한 불자가 되는 것"이라며 수행정진을 꾸준히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화두를 타지 못한 재가불자들에게는 신묘 장구대다라니를 꾸준히 독송해 수행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을 권하였다. 다라니는 위주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되기 때문이다.

공포 해운 스님은 평소 지프로 삼고 있는 경구라며 다음의 말을 들려주었다.

여인불경심상眞(眞人不競心靜) 위공무사공역한(僞公無事夢亦懶) 사람과 더불어 경쟁하지 않으니 마음이 항상 고요하고, 공적인 일을 위해서는 사사로움이 없으니 꿈에도 한가롭다.

불교의 발전과 정직한 사회, 질서 있는 사회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엿보였다.

글=배지선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현성 스님의 스님이야기**

**보림 스님**

누구보다도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스님하면 보림(寶林) 스님이 떠오른다. 보림 스님은 기도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무엇이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보림 스님하면 반짝거리는 두 눈이 먼저 떠오른다. 스님은 속리산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잡은 상고암(上庫庵)으로 출가했다. 법주사 입구에서 걸어서 두 세 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이다. 상고암은 속리산 정상 가까이에 있다 보니 연탄이나 기름은 입두도 못 내고 나무를 땀다. 그래서 스님은 출가하자마자 매일 지계를 지고 땀나 무를 하며 행자 생활을 했다. 육조 혜능(德能) 스님도 출가하기 전에 나무를 지고 저자거리를 걸다가 <금강경>의 '응당 머무

공장이 많고 불교세가 약한 곳에 포교당을 내려고 하는지 몰라 의아해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보림 스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안산은 신흥 공업도시다. 기존 불이 잘 갖춰진 서울 등은 누가 해도 포교를 잘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안산은 포교하기도 힘들지만 그만큼 부처님 법에 목말라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스님은 불교세가 약한 안산에서 새롭게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로 모든 사람들을 품에 안고 싶었던 것이다.

스님은 개인하자마자 적극적으로 포교에 나섰다. 일반법회는 물론 어린이·청소년·거사 법회를 열고 포교에 앞장섰다. 또 '밝은 세상보기 봉사회'를 만들어 노인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돌보기회를 보시하는 행사를 했다. 해마다 경로잔치도 빼놓지 않았다.

그 덕분인지, 건물 한 칸에서 시작한 보문선원은 5년 만에 건물 한층 규모로 확대됐다. 2000년 당시엔 작은 법당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대법당, 어린이법당, 청소년법당, 시민선방을 갖추었다.

**불교세 약한 안산서 포교 혼신 외국인 불자에 법당 제공 감동**

양적으로만 커진 것이 아니라, 외롭고 지친 사람들이 부처님법음을 듣고 다시 미소를 배워가는 도량이 된 것이다.

얼마 전 불교세 신문에서 스리랑카나 외국인 불자 노동자들이 신행활동을 할 만한 마땅한 절이 없다는 내용의 기사를 읽었다. 다른 종교의 적극적인 선교로 개종하는 사례까지 비밀비재하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듣고 불교의 무대력과 소극적인 자세로 불자들을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고 무척 안타까웠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얼마 안되어 해결되었다. 보림 스님이 마음을 내 임대료를 대신 내고 새 법당을 마련해 준 것이다.

이제는 외국인 불자들이 다른 종교 시설을 기웃거리지 않고 따뜻한 부처님의 보금자리에서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무척 감명을 받았다.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위로 같 것이 아니라 보다 낮고 낮은 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몸 부비며 존재하여 진짜 살아있는 불교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중생을 의연하고 오직 고고하게 앉아만 있는 것이 천부는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보림 스님과 도반이라는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다.

보림 스님에게 기자가 "포교란 무엇인가?" 하고 물었다. 스님은 "포교란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라고 대답했다. 맞는 말이다. 비록 작은 날개이지만 이 날개 짓이 모이고 모여서 커다란 바람을 만들고 태풍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 청원 현임사 총무



그림·문병성

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듣고 발심 출가를 했다. 사실 공부라는 것은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나무를 자르고 톱질을 하고 지게질을 하는 과정에서야 얼마든지 공부는 익고 진전되는 것이다.

그렇게 상고암에서 행자생활을 한 스님은 계를 받고 얼마 있다가 중앙승가대학교에 들어왔다. 스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해결하고 교인 매들을 푸는 '해결사' 역할을 했다.

중앙승가대를 마칠 무렵, 스님들이 선원에 가네 대학원에 가네 하고 각자 길을 가느라하고 바쁘게 움직이던 무렵 스님도 경기도 안산시내 한 복판에 보문선원(普門禪院)이라는 포교당을 열었다. 당시는 조계종 사태와 IMF 등으로 잘 되던 포교당도 문을 닫던 어려운 시기였다. 나는, 몇몇 스님들이 잇따라 포교당을 열던 때여서 도반이 또 포교당을 여는구나 하고 무뎠답하게 생각했었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나는 포교의 중요성을 잘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난 지금 안산의 보문선원은 행하는 스님에, 화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끊임 없이 드는 것이라며 화두 참구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

**항곡문도회 대표... 청소년 포교에 관심**

혜운 스님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한적한 주택가, 수십년의 수행이력을 드러내지 않은 채 마을주민과 어울려 살고 있는 지그마한 계구 인자한 얼굴의 노스님이 여여선원장 혜운 스님이다.

스님은 1931년 충남 대전에서 출생, 16세의 나이로 동학사에서 대강백 무불 스님 밑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17세에 해인사 항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했고, 1950년 동산 스님을 계사로 범어사에서 비구계를 수지했다.

부산 선암사에서 원주 소임을 맡아보며 당대 최고의 선지식 항곡 스님을 시봉했던 스님은 상원사에서 수선 안거 했다. 이후 하나뿐인 자식을 수행자로 떠나 보낸 채 23세부터 수절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1961년부터 20년간 염불암 주지 소임을 살았다.

이후 스님의 어머니는 발심 출가해 스님과 함께 수행자의 길을 함께 걸었고, 스님은 1981년 여여선원을 창건해 주석하고 있다.

스님은 항곡문도회 대표로 항곡 스님 열반 20주

기를 기념해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운봉항곡선사의 법어집을 재출간하고 보급하는데 앞장섰다.

또, 청소년포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청소년교 화연합회 대구경북지부장을 역임했고, 대구사원추진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오랫동안 맡았다.

60세 이후 모든 공적인 일을 내려놓았지만 지금까지도 스님은 매일 새벽3시반 어김없이 일어나 예불을 모시며 수행자의 하루 일과를 시작한 다.

75세의 노구에도 도량청소며 모든 일을 직접 행하는 스님은, 화두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끊임 없이 드는 것이라며 화두 참구에 온 힘을 다하고 계신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8월 6일개강

**2005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기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고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27기생을 모집함

<b>1년 교과목</b>	· 법회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장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중 (동산불교대학교) · 정영스님(승가대학교수) · 보각스님(승가대학교수) · 김계정(동국대학교수) · 권기중(동국대학교수) · 김도환(동국대학교수) · 윤영수(동화대학교수) · 김희성(동국대학교수) · 홍익스님(승가대학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b>2년 교과목</b>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신앙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안도스님(원종교원장) · 최불수(동국대학교수) · 주명철(동국대학교수) · 최홍석(금강대학교수) · 박 중 (동산불교대학교수) · 정병조(동국대학교수)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김상현(동국대학교수) · 보주스님(동국대학교수) · 차차서(동국대학교수)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김상원(승가대학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장교 1명, 주교 1명, 동산) (100명) (50명) (50명) · 불교다도학과(50명) · 불교미술학과(50명) · 불교한문학과(50명) · 불교강제문화학과(50명)	불교를 적극 신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경합판사건 3개	【불교학과】 2005년 6월 11일~ 2005년 7월 31일 입학금 20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영구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야도학)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미술학)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한문학)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불교강제문화학)	동산반은 지방거주자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

**4. 입학 일시** 불교학과 : 2005년 8월 6일 (토) 오후 5시 개강(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불교한문학과· 불교다도학과· 불교미술학과· 불교강제문화학과 : 2005년 9월 6, 7, 8일 개강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110-140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서울 : 보련각 (조계시일) 02)733-0333 · 부산 : 부다가이서점 051)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257-0161 · 광주 : 불일사점 062) 232-7542 · 제주 : 예전 수보리 승전 064) 743-4184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 과정을 졸업한 자는 한국불교교육단체연합회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회 **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한문학과)

**동산불교대학**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실크로드 문화탐방 14일**

실크로드의 길 중에 하나인 파미르고원은 수많은 서역 구법승들이 넘나들던 전법과 구법의 길입니다. 그 옛날 달아대사가 넘었다는 총령도 파미르고원을 말합니다. 기원전 4세기에는 알렉산더 왕이 현재 파키스탄의 간다라 지역을 정복하였고, 고대 그리스 문명과의 접목으로 간다라 불상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쇼카 대왕이 래 불교를 부흥시킨 카니시가 왕이 수많은 사원과 불탑을 세운 곳도 간다라입니다. 불교 최고의 부처님 고행사는 파키스탄의 라호르박물관에 있습니다. 수많은 불상과 사원 등 간다라와 파미르고원, 중국의 우루무치까지 고대 유적을 따라 순례하는 전법의 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출발일 : 1차** 7월 22일 출발 - 8월 4일 도착, **2차** 8월 21일 출발 - 9월 3일 도착

● **일 정** : 인천-파키스탄 라호르 도착-라왈핀디-탁실라-페사와르-스왈트(마애불)-카리코람하이웨이를 따라 칠라스-길기트-훈자(세계 최장수 마을)-탁스쿠르칸-카슈카르-쿠차(기질석굴)-투루판-우루무치-인천

**수미산 순례 24일**

● **출발일** : 8월 23일 출발 - 9월 15일 도착

● **일 정** : 인천-성도-라사-장체-시기체-라체-사가-파양-수미산-구계왕국-마나사로바-파양-사가-장무-카투만두-인천

● **문의 및 접수** : (주)실크로드여행사 02)720-960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 실크로드와 수미산 여행은 불교를 사랑하는 실크로드에 맡겨 주십시오.